

# 글로벌 기업과 AI·금융 결합 방안 모색

### 국민연금공단·뉴욕멜론은행, '금융산업과 인공지능(AI) 세미나'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5일 공단 본부에서 세계 최대 신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과 함께 '금융산업과 인공지능(AI) 세미나'를 개최했다. BNY는 1784년 설립된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약 50조 달러 규모의 수탁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2019년 전주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국민연금 해외채권 수탁 업무 등을 수행하며 전북지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이 글로벌 자산 운용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AI 기반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와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BNY의 하나 카블라워 부회장과 광광첸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 전북 도내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주제 강연과 패널 토론 및



국민연금공단은 5일 공단 본부에서 세계 최대 신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과 함께 '금융산업과 인공지능(AI) 세미나'를 개최했다.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BNY AI Hub 본부장 로렌스 물만

이 '모두를 위한 AI'를, 토뤼크 하미드 BNY 아시아 데이터 총괄이 'AI를 위한 데이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데이터 분석, 백오피스 효율화 등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에탁결제원, 신한카드프르너스의 AI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전북 금융생태계의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대학생들에게는 AI 금융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김성주 이사장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북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금융기관과 공동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AI와 금융의 결합 방안을 모색하고, 도내 대학생들에게 미래 금융산업의 방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김병석)이 식량작물 분야 현장전문가들과 만나 현장 중심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립식량과학원, 식량작물 현장전문가연합회 워크숍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김병석)이 식량작물 분야 현장전문가들과 만나 현장 중심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석 원장은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위치한 본원에서 '식량작물 현장전문가연합회' 대표자들과 공동 연수(워크숍)를 열고, 연구 성과의 신속한 현장 확산과 농업인 애로사항 수렴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 성과를 영농 현장에 빠르게 전파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연구 과제와 지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과 연구 간 거리를 좁히는 소통의 장이라

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연합회는 벼, 특수미, 보리, 콩 등 12개 주요 식량작물 품종의 현장전문가협의회 대표자 24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회원들은 품목별 최신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연구 성과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5년 주요 연구 성과와 2026년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2026년 현장 실증 및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김 원장 주재로 기상재해 대응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배 기술 등 품목별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도 진행됐다. /오상근 기자

# 안정적 마을기업 설립 돕는다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신규 마을기업 지정 준비 공동체 대상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2026년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입문) 교육'을 오는 30일 경진원 2층 도전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진

원이 공동 주최하는 과정으로, 지역공동체의 지원 기반을 다지고 신규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는 12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각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공동체는 구성원 5인 이상이 반드시 7시간의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과정은 마을기업 지정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절차로, 마을기업 및 공동체에 대한 이해, 우수사례 공유,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이

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 검증을 거쳐 안정적인 마을기업 설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윤여봉 원장은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신규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관련 문은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사회경제정책팀장으로 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 해외 재난안전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난안전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RISCON TOKYO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RISCON TOKYO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재난·위기관리 전문 전시회다. 기후재난과 지진, 소방 등 재난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위기관리 박람회로, 매년 350여 개 기업과 1만9천여 명의 참가객이 찾는 공공수요 중심 글로벌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과 함께 통합한국관을 조성해 재난안전

기업 전시와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재난안전 기술'의 국가 통합 이미지를 강화하고, 계약 전환 중심의 성과지향형 전시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기업에는 통합한국관 부스 입차 및 장치비, 물류 운송비가 지원된다. 또한 부스별 통역 지원과 홍보자료 제작, 사전 바이어 초청, 행정안전부 주관 부대행사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재난안전 제품·기술 보유 중소기업이며, 총 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북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 중소기업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6년 중소기업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8년 7월부터 시행되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등 글로벌 환경·기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협력 중소기업이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별 기업 지원과 함께 원청기업, 협력 중소기업, 수평기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권소사업' 모집 방식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원청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진단이 우선 실시된다. 경영 체계와 리스크 요인을 종합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보통 수준 기업에는 에너지 효율화, 산업안전보건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인벤토리 구축 등 취약 지표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우수 수준 기업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과 국제 인증 취득 등을 연계 지원한다. 또 자가진단 참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은행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업 종료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성과 점검 등 사후 관리도 이어간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ESC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 전북자치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가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신규 입주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9실로, 14㎡형 6실, 21㎡형 1실, 30㎡형 2실이다.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는 업무 공간과 함께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오상근 기자

신청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 업체는 기본 1년 계약 후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도박·투기 등 사행성 조장 업종과 불건전 업종, 금융·보험·주점·숙박·유흥업 등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상근 기자

### 전주상공회의소, 2025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5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기업들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재정경제부 세제실 사무관은 2025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전반을 설명했다. 특히 기



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목별 개정 내용과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안내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